

여론조사꽃 특집여론조사 보고서

CATI

특별A: 정당지지도

특별B: 정당지지도+사회현안

여론조사꽃

특집여론조사 보고서

CATI

CATI 특별A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4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7	49.5	497	49.5	1.00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7	50.5	507	50.5	1.00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7	15.6	155	15.4	0.98	
응답률	18.3% [총 통화시도 5,479명]			30대	152	15.1	150	14.9	0.98	
조사기간	2025년 1월 23일 ~ 1월 25일(3일간)			40대	174	17.3	176	17.5	1.01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8	19.7	197	19.6	0.99	
				60대	176	17.5	177	17.6	1.00	
				70세 이상	147	14.6	149	14.8	1.01	
			지역	서울	187	18.6	186	18.5	0.99	
				인천·경기	324	32.3	325	32.4	1.00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8	10.8	1.00	
				광주·전라	97	9.7	97	9.7	1.00	
				대구·경북	98	9.8	98	9.8	1.00	
				부산·울산·경남	149	14.8	148	14.7	0.99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6.5 34.9 30.7 8.0

CATI 특별B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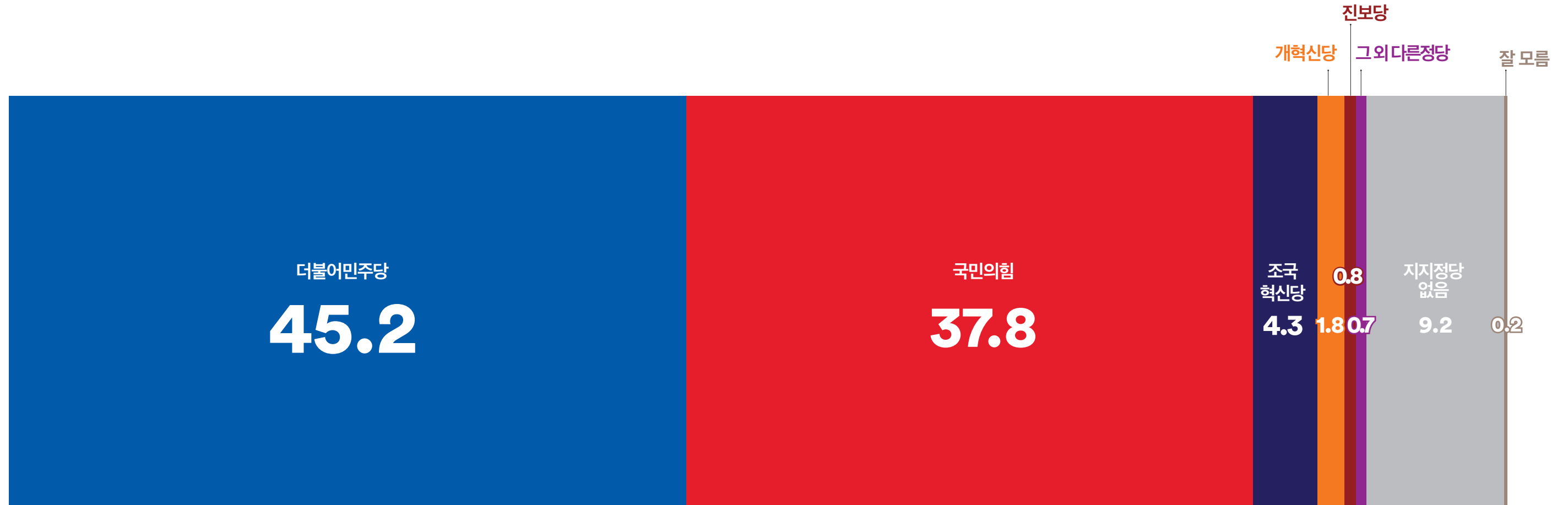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7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7	100.0	1007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4	50.0	498	49.5	0.98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7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7)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3	50.0	509	50.5	1.01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8	15.7	156	15.5	0.98	
응답률	14.1% [총 통화시도 7,154명]			30대	153	15.2	150	14.9	0.98	
조사기간	2025년 1월 23일 ~ 1월 25일(3일간)			40대	173	17.2	176	17.5	1.01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01	20.0	197	19.6	0.98	
				60대	175	17.4	178	17.7	1.01	
				70세 이상	147	14.6	150	14.9	1.02	
			지역	서울	187	18.6	187	18.6	1.00	
				인천·경기	327	32.5	325	32.3	0.99	
				대전·세종·충청	106	10.5	109	10.8	1.02	
				광주·전라	99	9.8	98	9.7	0.98	
				대구·경북	96	9.5	98	9.7	1.02	
				부산·울산·경남	151	15.0	148	14.7	0.98	
				강원·제주	41	4.1	42	4.2	1.02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8.0 40.8 25.0 6.2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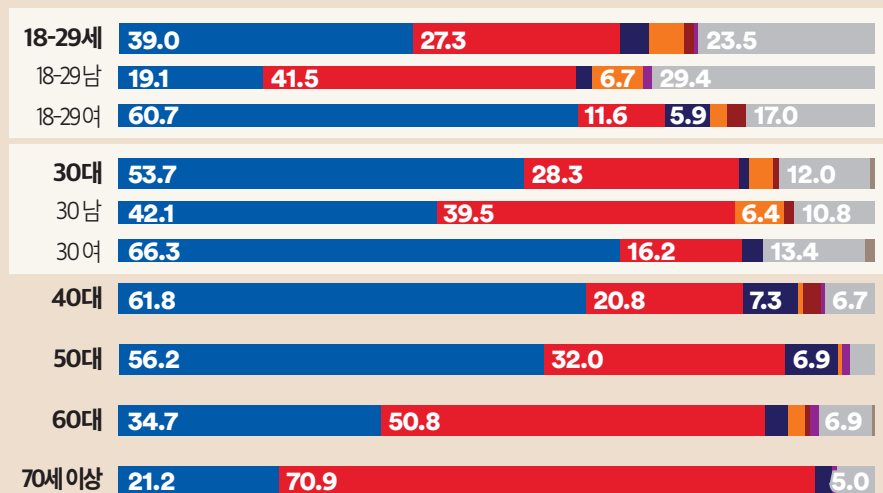
특별A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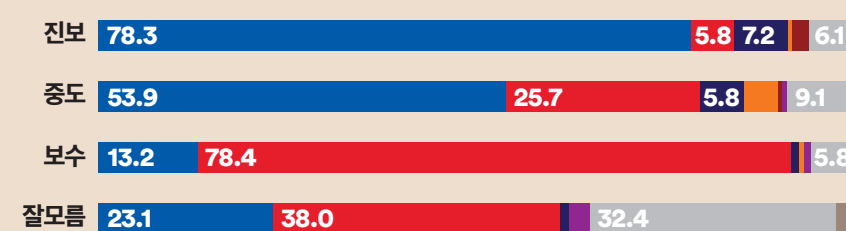


PK,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60대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8.2%p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34.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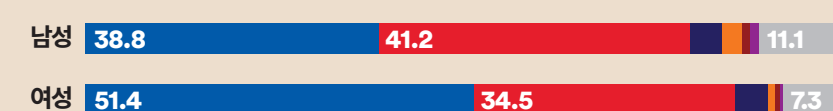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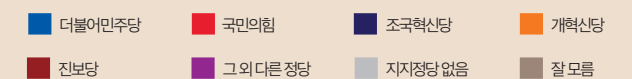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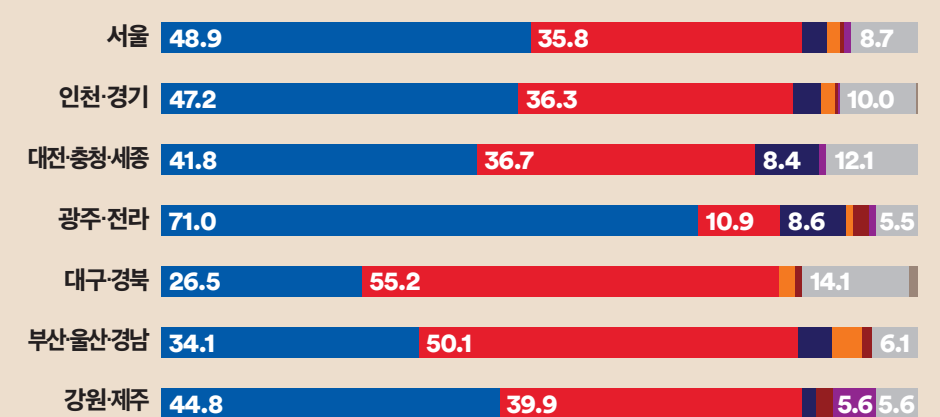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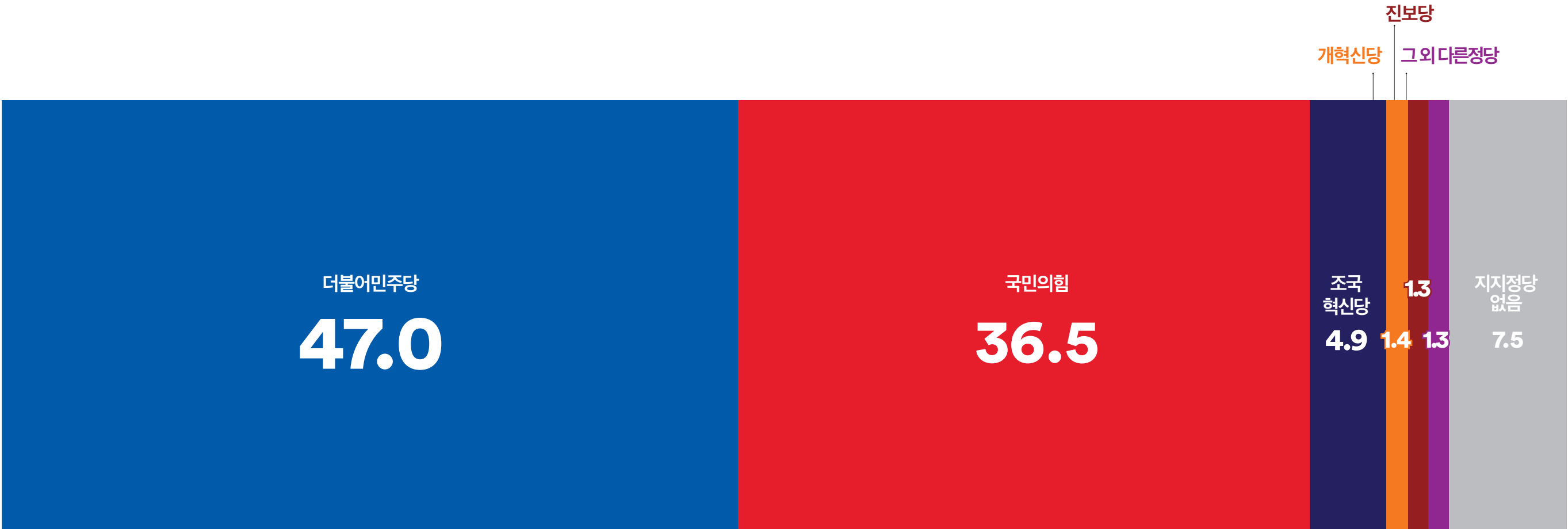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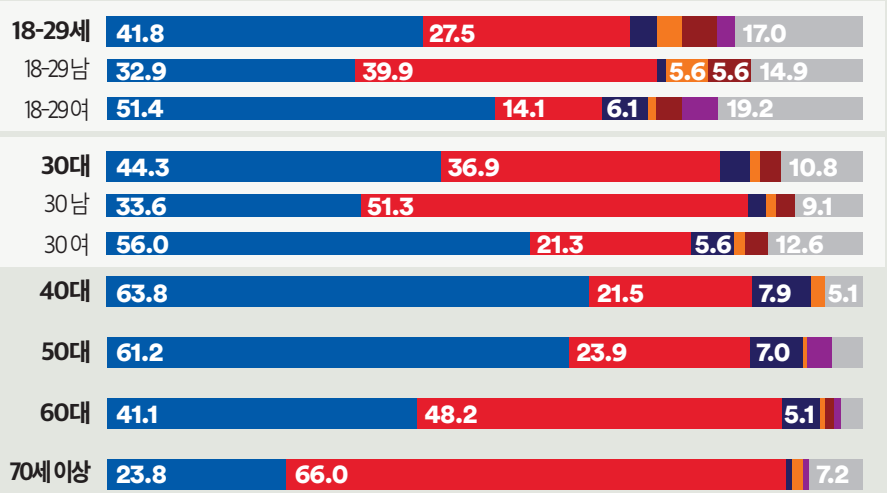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특별B
정당지지도
+
현안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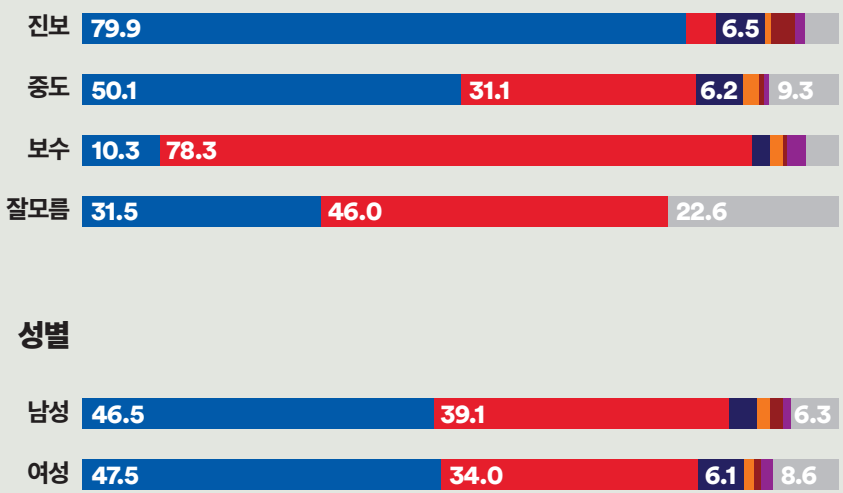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TK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19.0%p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5.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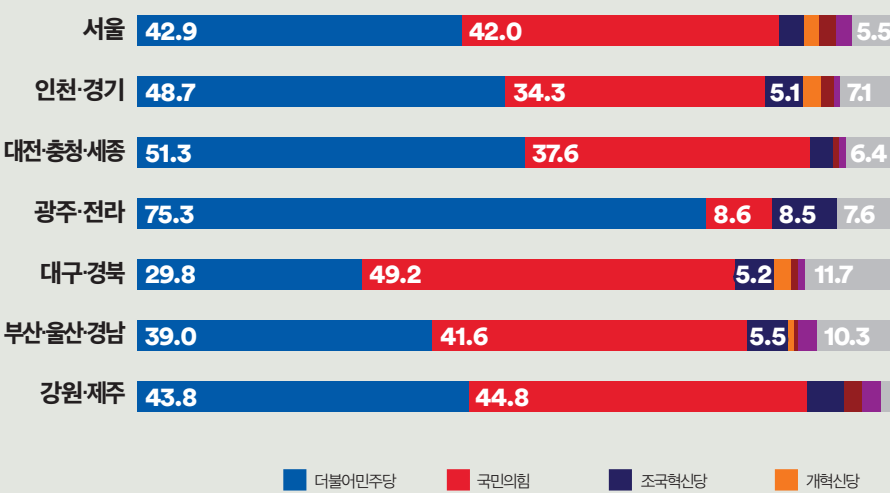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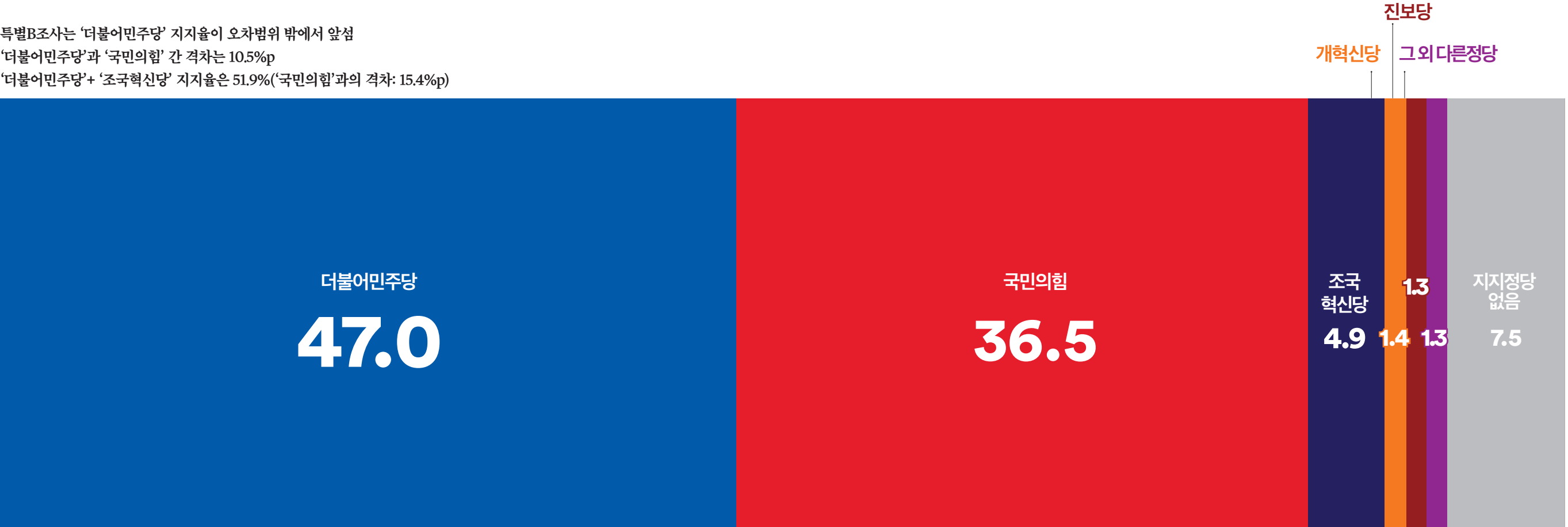
권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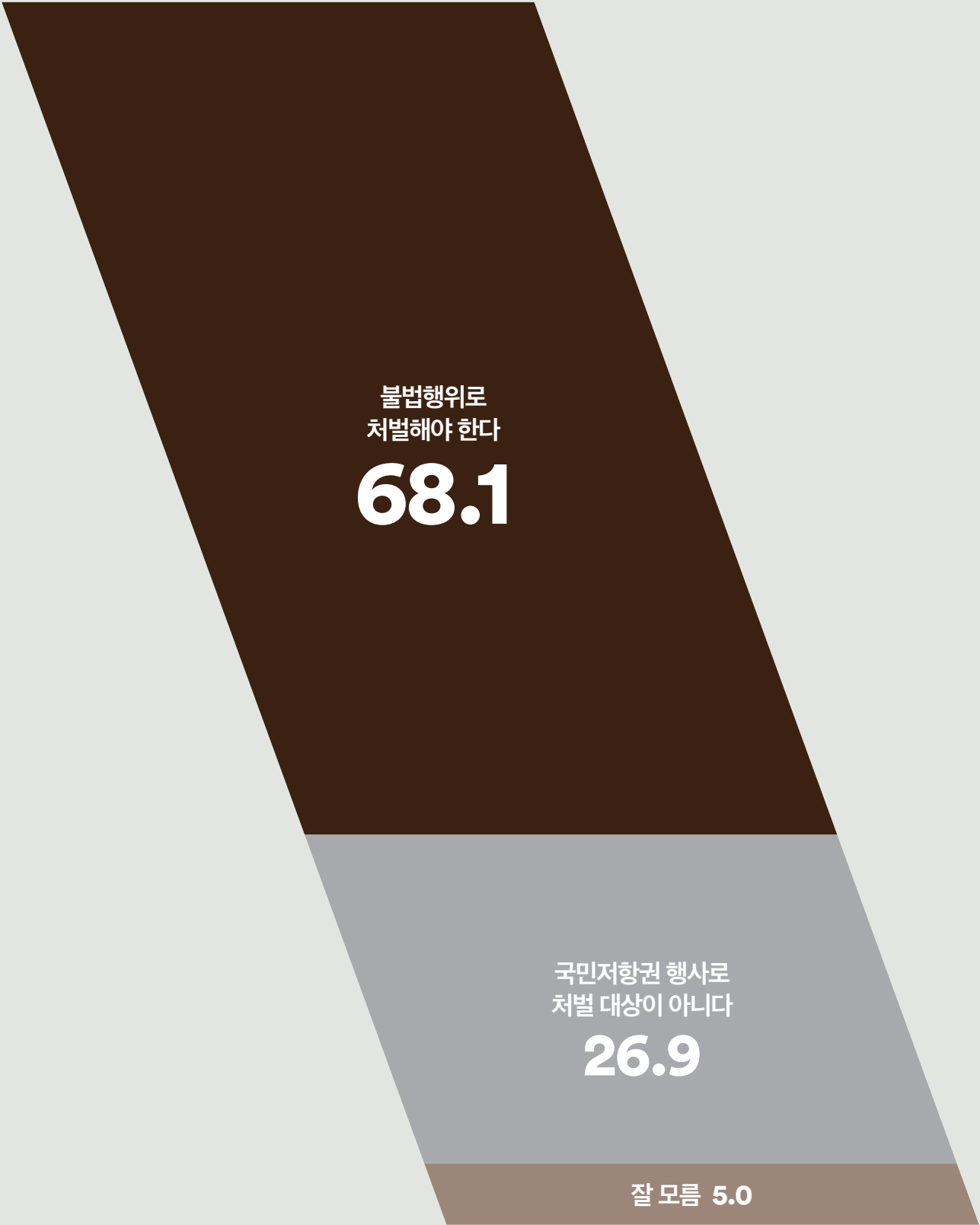
특별B
정당지지도
+
현안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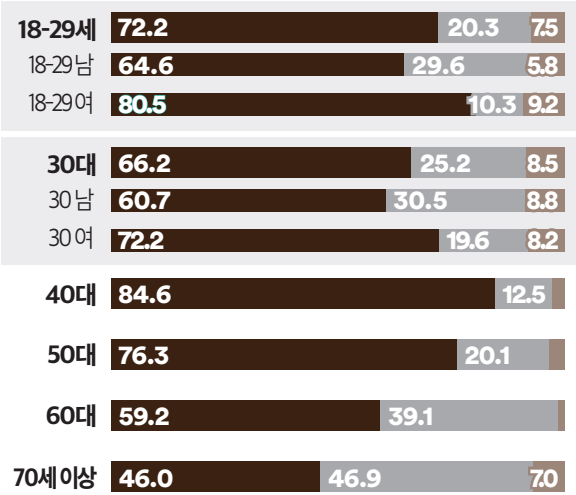
특별A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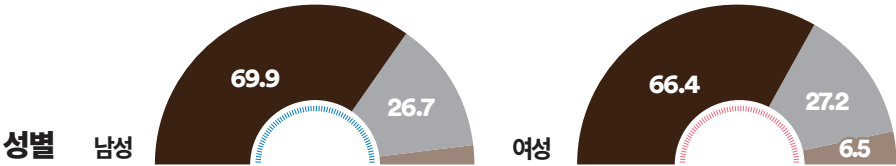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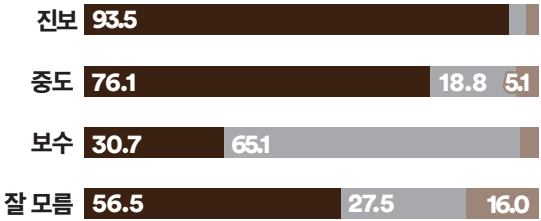
Q.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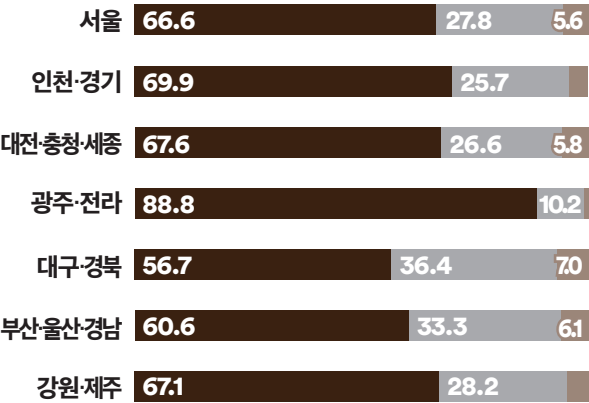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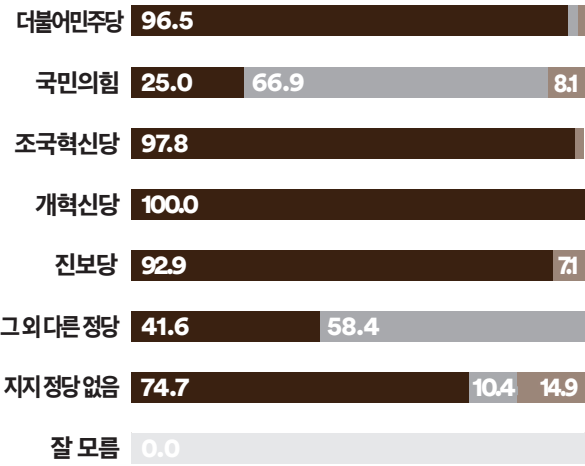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서부지법 폭동사건은 처벌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1.2%p)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6.9%), 보수층(65.1%)에서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처벌해야 한다’ 46.0%, ‘처벌 대상이 아니다’(46.9%)로 팽팽한 의견을 보임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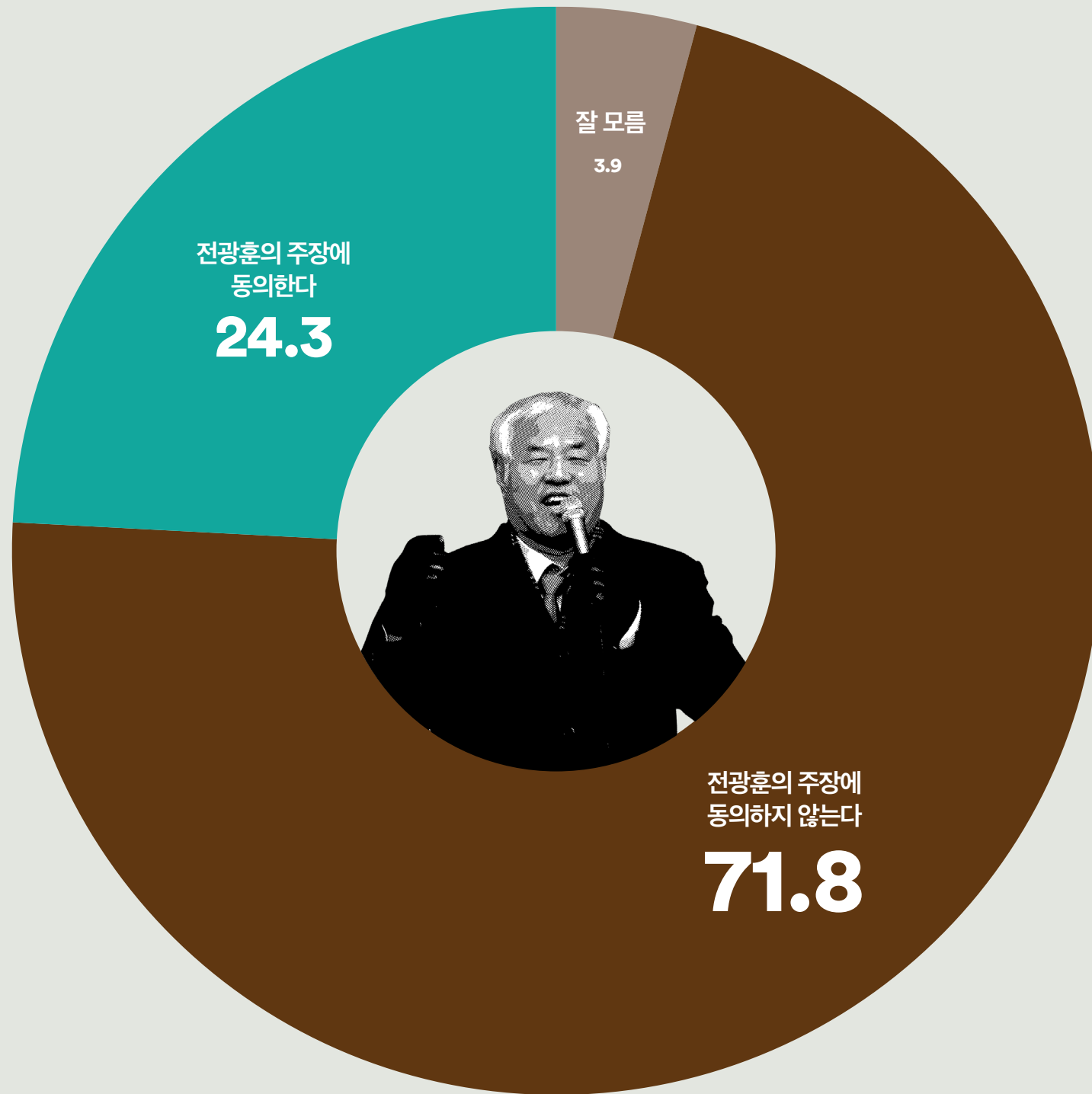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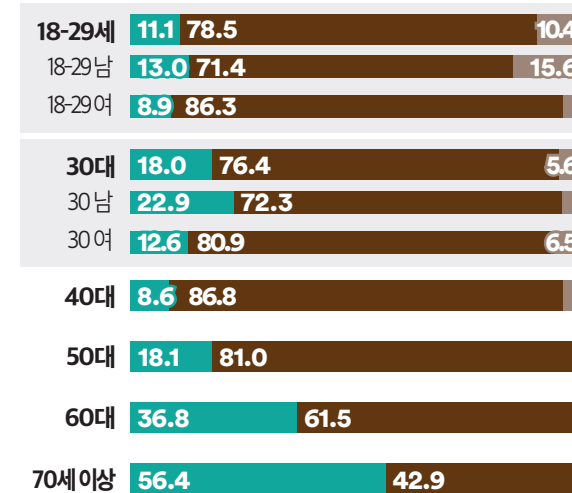
■ 처벌해야 한다 ■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잘 모름

Q. 전광훈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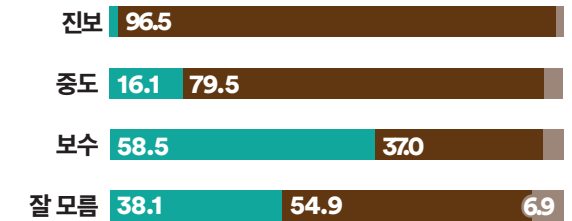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전광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7.5%p)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공감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 응답층(56.4%),국민의힘 지지층(62.4%), 보수층(58.5%)에서 앞서거나 우세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층(96.5%), 호남권(92.5%), 40대 남성층(92.0%)등에서 압도적으로 응답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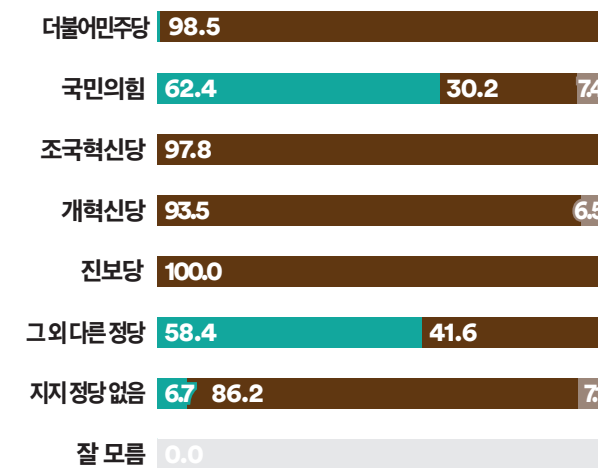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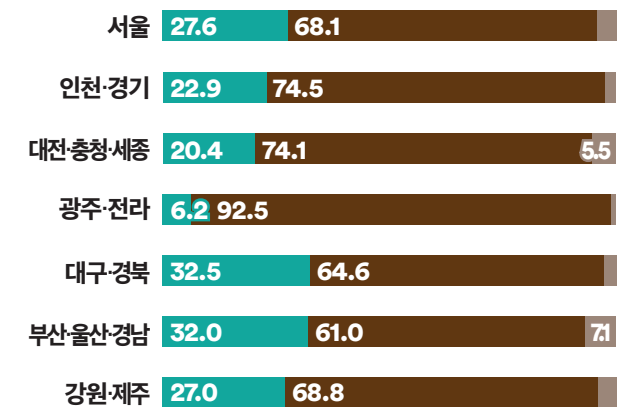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권역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름

Q. 윤석열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질의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23.8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아까 그 군인들이 그 본청사에 진 입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있는데도 ...”

“그러면 12월 3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주욱 그렇게 가는것이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개입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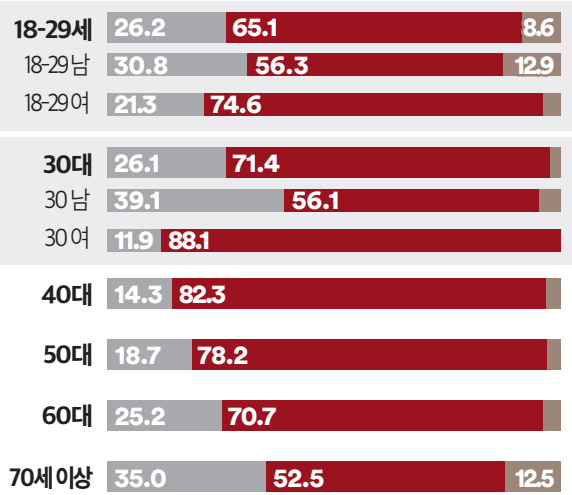
[2025년 1월21일 헌재 심문 중 윤석열의 주장]

윤석열의 말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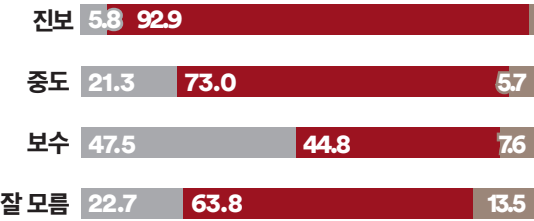
잘 모름 5.5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의 말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6.9%p)
모든 권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4.5%), 보수층(47.5%)에서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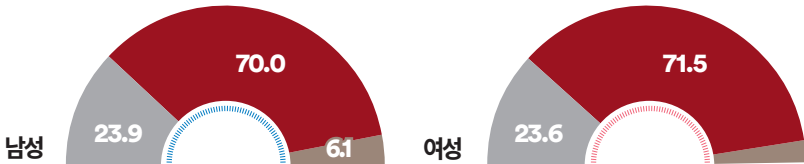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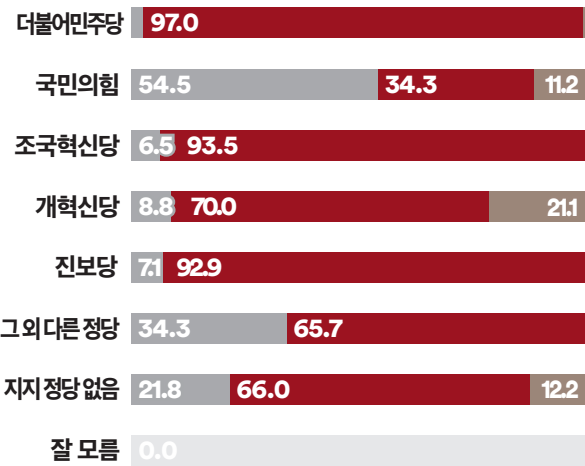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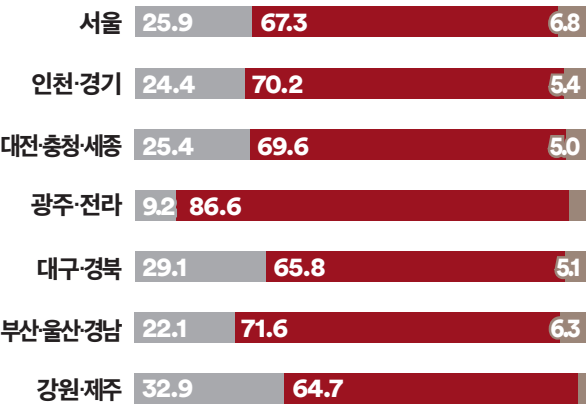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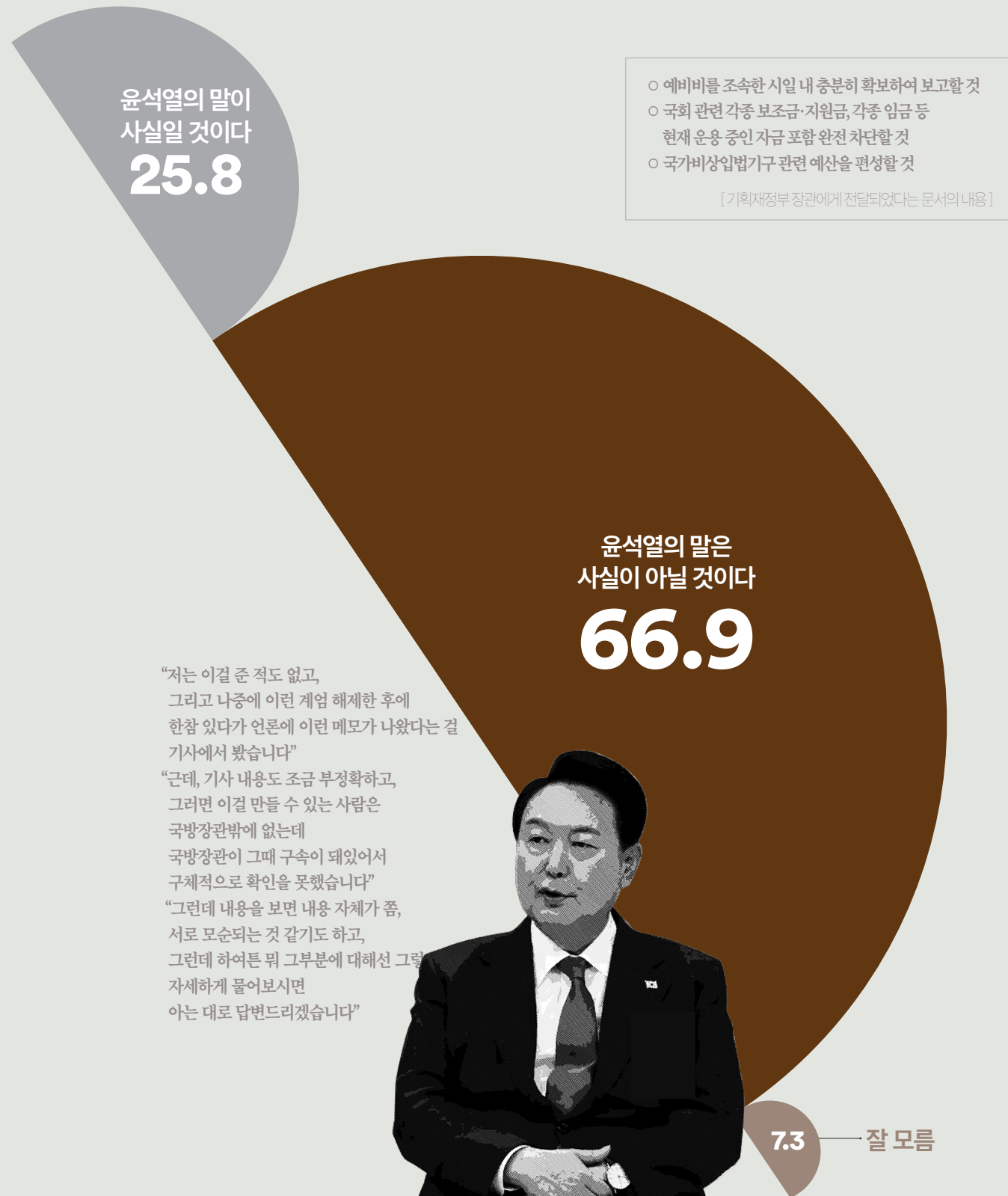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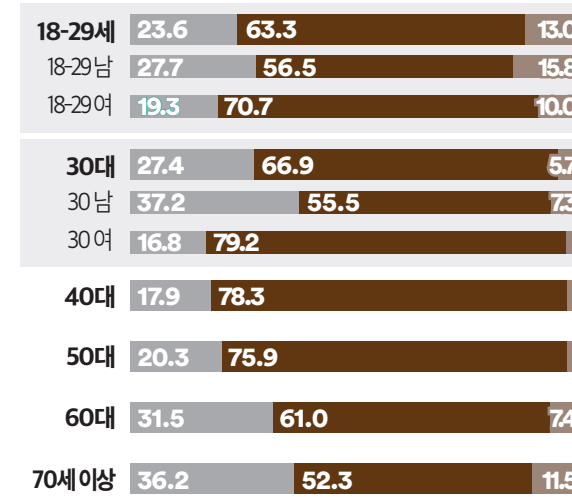
■ 사실일 것이다 ■ 사실이아닐 것이다 ■ 잘 모름

Q. 윤석열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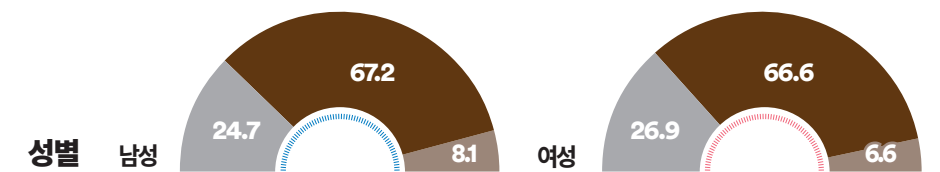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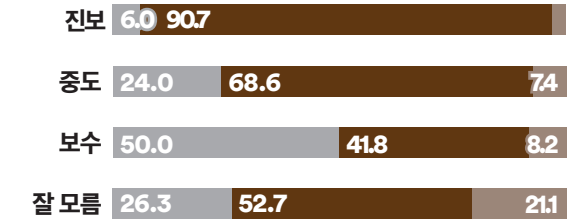


3명 중 2명 이상이 ‘쪽지를 주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말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1.1%p)
모든 권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3%), 보수층(50.0%)에서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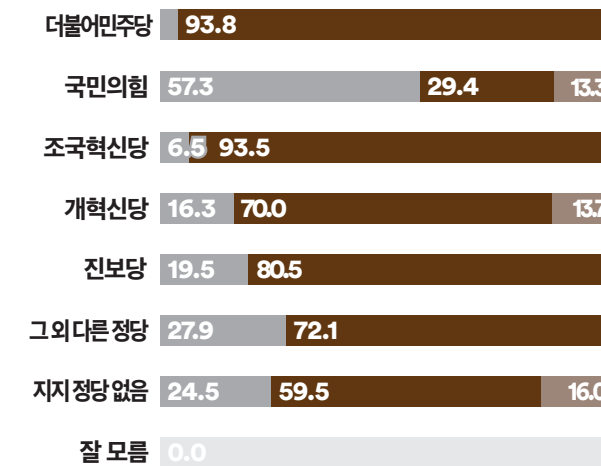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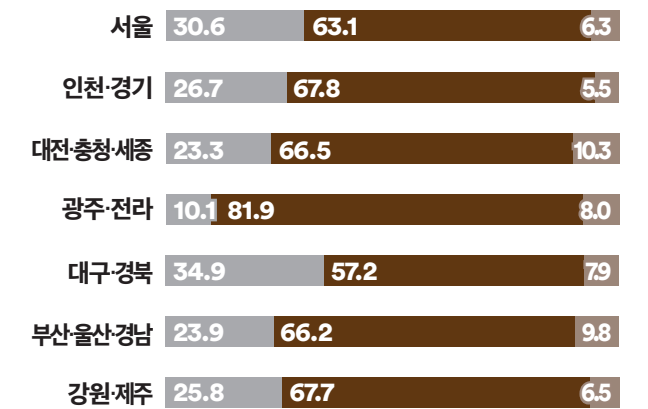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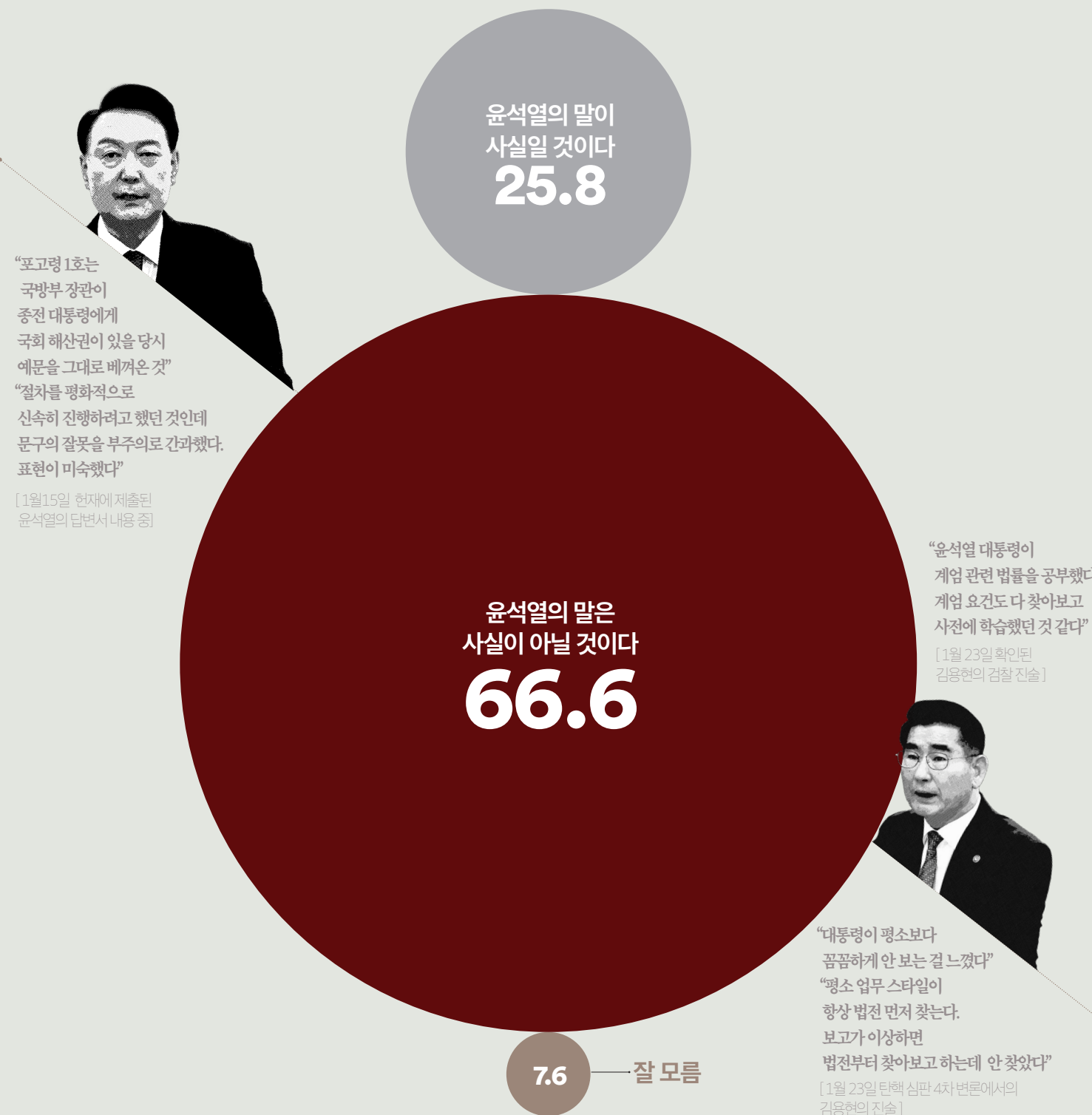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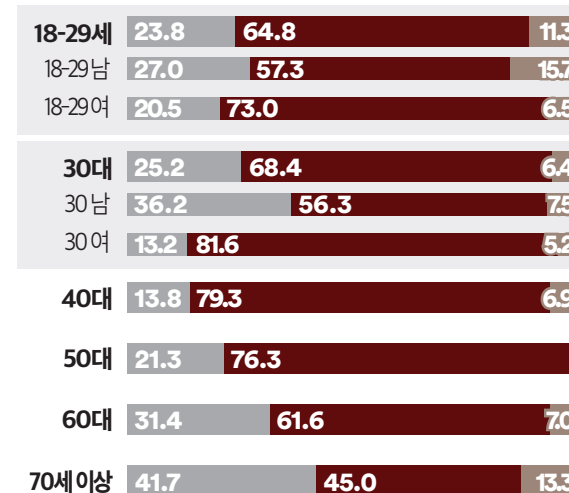
■ 사실일 것이다 ■ 사실이 아닐 것이다 ■ 잘 모름

Q. 윤석열은 ‘게임포고령의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낀 것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부주의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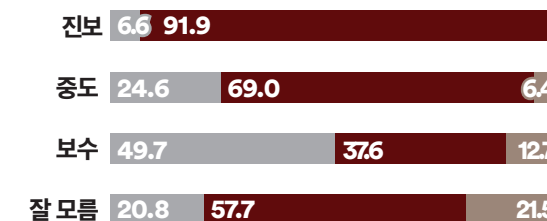


포고령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해 김용현이 과거의 것을 베낀 것이고 윤석열은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말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0.8%p)
모든 권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8.9%), 보수층(49.7%)에서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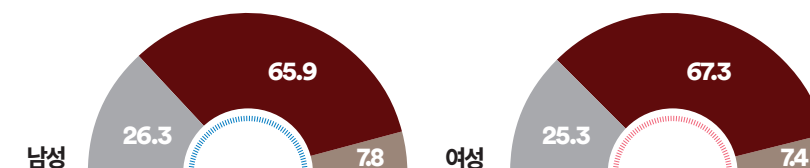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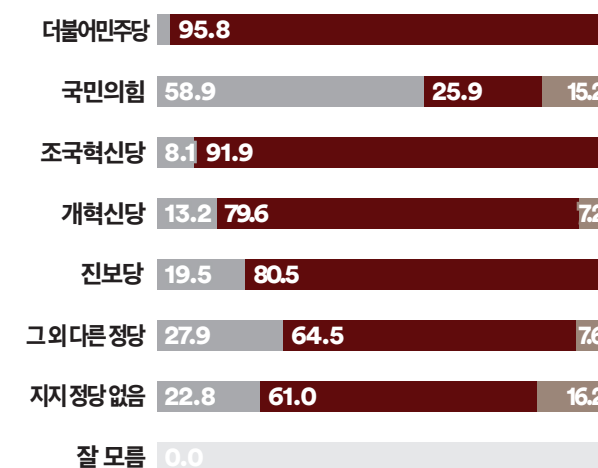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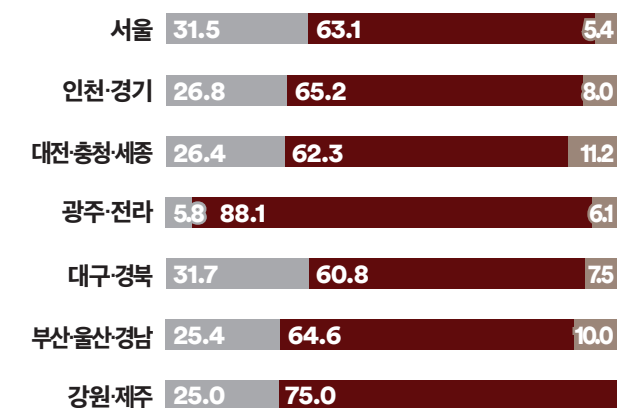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권역



■ 사실일 것이다 ■ 사실이 아닐 것이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특집여론조사 보고서

DR_202501_05
